

싱가포르 에어쇼 2010 참관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분야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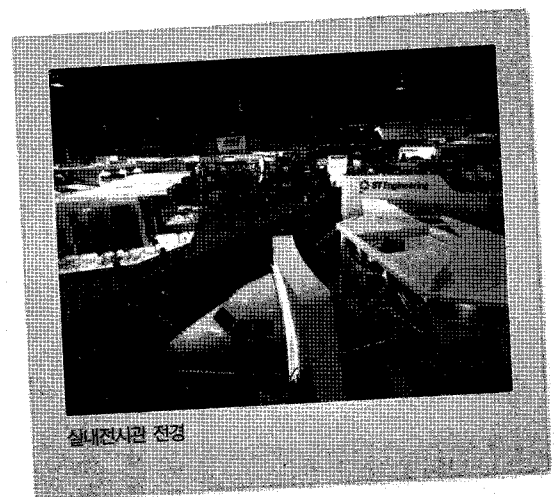
지난 2월 2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 창이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에어쇼는 항공우주산업분야 전문 전시회로 프랑스의 파리에어쇼, 영국의 판보로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분류된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1980년대 초반부터 영국의 Reed社와 Singapore Engineering Co.에 의해 공동 설립된 Asian Aerospace Ltd.에 의해 개최되어 오다 지난 2006년 Reed社와 결별하고 새롭게 설립된 'Singapore Airshow & Events Pte Ltd.'에 의해 2008년 첫 전시회 이후 올해 2번째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2007년 총면적 40,000㎡에 달하는 상설 실내전시장을 신축하였으며, 야외전시장 규모도 90,000㎡로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개최되고 있다.

2010년 전시회 결과

싱가포르 에어쇼 운영본부는 이번 전시회 세계 36개국 897개 업체가 참가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수주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기간 중에는 43,000명의 전문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전시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80개국 259명 VIP를 초청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8년 에어쇼와 비교하여 전시참가국은 12개국(2008년 48개국), 수주 발표액도 30억불(2008년 130억불) 감소한 수치다. 싱가포르 에어쇼의 질적, 양적인 감소는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글 | 윤정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시사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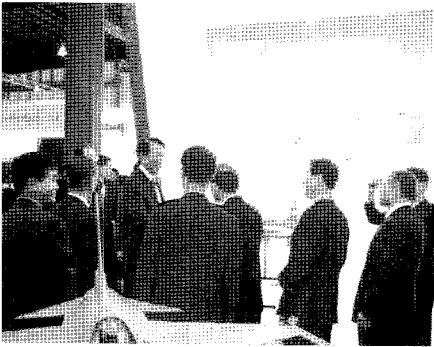
지난 2008년 야외전시장에 약 2,000㎡ 규모의 임시전시관을 설치하고 지상장비업체 홍보관을 구성하였으나, 이번 전시회는 실내 상설전시관에 통합 운영되었다. 또한 실내전시장 내 많은 공간이 임대되지 못하여 Visitor Lounge, Green Pavilion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Asian Aerospace와의 결별 후 축소된 행사 규모와 세계 다른 에어쇼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비싼 전시참가비는 싱가포르 에어쇼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실내전시관 전경

한국 정부 및 참가업체의 마케팅 활동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이 실내 전시면적 130㎡, 살레 2동을 임대하여 T-50 시뮬레이터, TA-50, KT-1C, 무인항공기, 한국형 기동헬기 모형 등을 전시하였으며, 특히 싱가포르 고등훈련기 도입과 관련하여 T-50 실물기도 전시하였다. 우리협회도 홍보관을 구성하고 회원사 브로슈어 배포, 항공우주산업 홍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탄약제조 업체인 풍산(24㎡)도 홍보부스를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특히 KAI는 싱가포르 상공에서 매일 시범비행을 수행하여 T-50의 우수한 성능을 선보였다.



전시회 기간 중 티오 치 헨 싱가포르 부수상이 KAI 부스를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는 공군참모총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지식경제부, 육군, 해군, 방위사업청 등 총 21명의 T-50 마케팅단을 구성하고 정부차원의 T-50 수출지원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 싱가포르는 고등훈련기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UAE 원전사업 수주 이후 T-50 수출을 정부차원에서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티오 치 헨(Teo Chee Hean) 싱가포르 부수상 겸 국방장관이 KAI 부스를 방문하여 T-50 시뮬레이터기에 탑승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공군참모총장은 KAI 부스를 2회나 방문하여 T-50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전시회 기간 중 T-50은 자상전시를 비롯해 화려한 시범비행을 선보였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 홍보활동

우리협회는 2011년 전시회(2011.10.18~10.23, 서울공항)의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협회는 27개 주요 업체 및 관련기관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2011년 전시회 참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2009년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조언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여전히 아태지역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전시회를 자부하는 싱가포르 에어쇼이지만 올해와 같은 큰 규모의 축소는 아시아 지역 경쟁 전시회인 우리 전시회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협회는 싱가포르 에어쇼에 버금가는 전시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겠으며, 상설 전시관 구성을 위한 기반 시설물 설치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시회장에 설치된 협회 부스

